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미국 인플레이 우려 심리 낮아졌다... 2021년 이래 최저
- Bloomberg: 코비드 이후 미국인들 외식 더 늘어나

[금융]

- Bloomberg: 연준 이사, “일부 은행 우려 때문에 연준 정책 변경해선 안 돼”
- Bloomberg: 주식 시장, 랠리 이후에 방향 ‘혼돈’

[서부 항만]

- CNBC: 노조 ILWU “완전 합의에 수개월 걸릴 수 있다”

[글로벌 경제]

- WSJ: 글로벌 경제, 서로 동조화 안된다
- Bloomberg: 글로벌 금리 인상 막바지에 침체 우려에 시달려

[여행]

- The Economist: 여행 붐 얼마나 지속될까?

[휘발유 가격]

- WSJ: 올 여름 휴가 시즌에 휘발유가 떨어진다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소매업체들, 공급망 예측 바꾼다
- CNBC: CNBC “소매 업체들 대폭 할인하고, 재고는 줄인다”
- Bloomberg: 미국인들 여전히 취미 생활에 빠져 있다
- CNN Business: Mercedes, 자동차에 ChatGPT 도입하다
- Bloomberg: Intel, Micron, 해외 투자 확대한다

[보고서]

- J.P. Morgan: 새로운 산업정책 전쟁과 첨단 칩의 핵심 역할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Consumer Year-Ahead Inflation Expectations Lowest Since 2021

미국 인플레이 우려 심리 낮아졌다... 2021년 이래 최저

- 6월 초 현재 미국인의 단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소비자 심리가 회복되었다.
- 미시간 대학교의 6월 잠정 예비치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향후 1년간 물가가 연간 3.3% 상승할 것으로 했는데 이는 전월인 5월에 예상했던 4.2%보다 낮아진 수치.
- 오늘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 상한선에 대한 양당의 합의에 힘입어 심리지수가 4개월 만에 최고치 63.9로 상승했다.

- 반면에 미인들의 소득에 대한 우려는 커졌다. 그동안 강력한 노동 시장이 균형을 되찾으면서 더 이상 임금 인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Americans Are Eating Out More as the Covid Home Cooking Boom Fades

코비드 이후 미국인들 외식 더 늘어나

- 팬데믹 기간에 외식을 중단하고 가정용 식사를 위해 식료품 구입 붐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붐은 작년초에 끝난 것으로 경제분석국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 반면에 식당이나 다른 식품 서비스 제공업체에서의 지출은 늘었다는 것.
- 연방 농무부는 2022년 미국 가정 식품 지출의 53.2%를 '집 바깥 음식'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이는 2020년 48.3%, 1997년 43%에서 증가한 수치다.

Bloomberg 기사

[금융]

Bloomberg: Fed's Waller Says Fears Over a Few Banks Should Not Alter Policy

연준 이사, “일부 은행 우려 때문에 연준 정책 변경해선 안 돼”

- 연준 이사 Christopher Waller는 “최근 은행권의 힘든 상황이 미국의 대출 조건을 상당히 까다롭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면서 “일부 대출기관에 대한 우려 때문에 관계당국이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을 막아서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그는 연준의 금리 인상정책을 강조하면서 “일부 은행의 비효율적인 경영에 대한 우려 때문에 통화정책 입장을 바꾸는 것으로 지지 않는다”며 “연준이 금리 이상 때문에 은행의 대차대조표 손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일부 비평가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Stocks Struggling for Direction After Big Rally: Markets Wrap

주식 시장, 랠리 이후에 방향 '혼돈'

- 계속되는 주식 시장의 랠리가 다소 동력을 잃었다. 이유는, 칩 제조에 대한 우려스러운 전망, 지정학적인 우려, 금요일에 만기가 도래하는 엄청난 양의 옵션에 따른 포지셔닝 때문이다.

- S&P 500지수가 방향성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밝혔는데 중국 기반 고객 매출의 절반 가량이 위험하다고 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벨라루스에 첫 핵무기를 인도했다는 소식도 투자자들의 관심을 잡았다.
- 일부 관계자들은 현재 주식이 약세는 아니라는 것. 그러나 시장이 현재 중요한 시장 영향 요인이 개선됐다는 제한적인 증거만으로 시장이 골디락스 경제 환경에서 얼마나 빨리 가격을 반영했는지 감안해 본다면, 시장의 단기 방향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

Bloomberg 기사

[서부 항만]

CNBC: For ILWU, West Coast port deal to be union-ratified, here's what has to happen next

노조 ILWU 완전 합의에 수개월 걸릴 수 있다”

- 서부 해안 항만 관리와 항만 노동 조합(ILWU)은 이번주 수요일 밤 샌프란시스코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전체 노조가 이런 합의를 승인하기까지 몇 달이 걸릴 수 있다.
- ILWU에 따르면 제안된 노동 협약에 완전히 승인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 이번 합의에 대한 노조 성명은 긍정적이었지만, 합의가 완전히 성사되기까지 아직 몇 단계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 ILWU는 비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이는 서부 해안 29개 지역 노조 대의원을 소집하는 계약 간부 회의(contract caucus)로 시작된다. 관계자는 이 과정을 완료하는 데 몇 달이 걸린다고 말했다.

CNBC 기사

[글로벌 경제]

WSJ: The Global Economy Looks Like It's Out of Sync

글로벌 경제, 서로 동조화 안된다

- 바로 최근 유로존은 금리 인상, 미국은 동결, 그리고 중국은 인하하는 등 다른 정책 방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글로벌 경제 상황을 이해해가 힘들고, 특히 연준이 인플레이를 극복할 가능성에 대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이처럼 정책 방향이 다른 것은 그들 지역의 서로 다른 환경 때문이다. 유럽 중앙은행은 지속적인 인플레이를 예상하고 있고 반면 중국은 인플레이션은 문제가 없는데 장기간 락다운과 부동산 거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인플레이는 떨어졌지만 근본적인 물가 상승은 여전히 고질적인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 글로벌 차이는 이미 통화정책을 흔들고 있다. 올해 위안화는 약세를 보였고, 수출 경제력을 높이면서 수익을 억제해 중국 경제에 유리하게 작용하

고 있다.

- 미투자자들에게 관심사는 유럽과 영국중앙은행이 연준보다 더 매파적인 움직임이어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고 유러화및 파운드화가 달려 대비해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WSJ 기사

Bloomberg: Global Rate-Hike Endgame Is Now Haunted by Recession Worries

글로벌 금리 인상 막바지에 침체 우려에 시달려

- 경제적 피해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등의 중앙은행들이 약속한 다음번 금리 인상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 당초 파월 연준 의장은 0.5% 포인트 추가 인상,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은 0.25% 포인트 추가 인상 가능성이 높이고 밝혔었다.
- 정책입안자들이 미국 경기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회의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과 독일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2년물 국채 수익률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 오늘 금요일 미국 국채 곡선은 미국 지역 은행들의 위기가 글로벌 시장을 뒤흔들기 직전인 3월 초 수준에 가까워 역전폭이 약간 더 커졌다. 미국 2년물 수익률은 4bp 상승한 4.68%로 10년물 수익률의 3bp 상승폭인 3.74%를 앞질렀다.

Bloomberg 기사

[여행]

The Economist: How long will the travel boom last?

여행 붐 얼마나 지속될까?

- 국제항공운송협회(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에 따르면 항공요금이 인플레이션보다 빠르게 상승함에 따라 글로벌 항공사들은 올해 순이익이 당초 예상치의 두 배 이상인 9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휴가 붐으로 해외 여행에 대한 전망이 밝아졌다. 유엔 세계관광기구(un's World Tourism Organisation)는 올해 전 세계 관광객 수가 2022년 63%에서 팬데믹 이전 수준의 최대 9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 그런데 수요 관련하여 바쁜 여름을 보낸후에 휴가에 대한 욕구가 상승한 만큼 빠르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미국과 다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휴가 붐에 부정적일수 있다. 중국인들도 마카오, 태국 같은 가까운 곳에 대한 여행 인기가 높지만 장거리 여행지 열리는 미지근하다.

- 이미 비용증가와 과거 손실로 부터 회복하는데 부채가 많은 업계의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The Economist 기사

[휘발유 가격]

WSJ: Gas Prices Ease for Summer Driving Season 올 여름 휴가 시즌에 휘발유가 떨어진다

- AAA에 따르면 이번주 목요일 휘발유 1갤런은 평균 3.59불이다. 전년의 최고치인 5불보다 낮은 가격이다.
- 디젤 가격은 갤런당 3.90불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88불 하락한 것이다. 천연가스 가격은 77% 이상 하락했다. 미 노동 통계국의 에너지 지수는 1년 동안 11.7% 감소했다.
- 특히 올 여름에 휘발유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다.
- 한편 작년 여름 국제 유가는 120불에서 배럴당 75불로 하락했다. 경기 침체 우려, 중국 경제 재개 지연, 러시아 원유 유입 중단 등 때문이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WSJ: Retailers Are Trying to Fix Their Supply-Chain Forecasts 소매업체들, 공급망 예측 바꾼다

- 소매업체는 새로운 기술과 공급망 전반 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있다. 공급망 예측을 수정하기 위함이다.
- 이는 팬데믹 기간 동안 급변한 소비 시장에서 판매업체가 제품 부족과 재고 과잉 사이의 격차를 좁히기 위한 것이다.
- 이러한 문제는 많이 완화되었지만, 소매업체들은 판매량을 늘리고 마진을 유지하기 위해 상품 흐름을 즉각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공급망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o9 Solutions CEO Chakri Gottemukkala는 “앞으로 복잡성과 변동성이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처리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WSJ 기사

CNBC: Retailers are preparing for a discount heavy, down holiday season: CNBC survey

CNBC “소매 업체들 대폭 할인하고, 재고는 줄인다”

- CNBC 공급망 설문 조사에 따르면 소매업체들은 주문량을 줄이고, 소비자들이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할인을 제공하게 된다.
- 작년 여름, 대형 유통업체인 Target과 Walmart는 재고를 대량으로 쌓아두고 가파른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주문 성수기인 지금, 많은 소매업체들이 재고를 줄이고 있다.
- 1분기 실적 발표에서 대형 유통업체 대표들은 소비를 줄이는 소비자를 언급했다. 다른 CNBC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
- 지난 여름 9%를 넘었던 인플레이가 최근 4%로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71%가 휴가 지출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

CNBC 기사

Bloomberg: Americans Are Still Really Into Their Hobbies 미국인들 여전히 취미 생활에 빠져 있다

-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켰다. 특히 미국인들은 레크리에이션, 그 중에서도 ‘수수료 없는 주식 거래’(commission-free stock trading)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 매일 사무실로 출근하는 사람이 줄어들면서 미용실, 드라이클리닝, 대중교통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다. 실내 엔터테인먼트(예: 영화)는 팬데믹 기간 동안 약화 되었다가 회복하고 있다.
- 즉, 최근 데이터를 보면 팬데믹 때보다도 미국인들은 게임이나, 스포츠, 독서 활동에 더 활발하다는 것이다.
- 한편 올해 4월 달걀 가격은 2020년 2월에 비해 59% 더 비쌌다. 미국 내 외국인 여행객의 지출은 감소한 반면, 미국인의 해외 지출은 증가 했다.

Bloomberg 기사

CNN Business: Mercedes is bringing ChatGPT into its cars Mercedes,자동차에 ChatGPT 도입하다

- Mercedes-Benz와 MS는 Mercedes-Benz 차량에 ChatGPT를 도입하기로 합의 했다. ChatGPT는 ‘생성 AI’로 실제 사람과 같은 대화를 나눌 수 있다.
- Mercedes 차량에는 이미 음성 명령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단순한 명령어를 통해 차량의 온도 조절, 내비게이션 목적지 찾기, 전화 걸기 등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 ChatGPT를 도입하면, 단순한 명령보다 자연스러운 대화를 사용할 수 있다. 시스템은 내용의 맥락을 기억하고 운전자 혹은 탑승자와 대화할 수 있다.

게 된다.

- 또한 운전과 관련이 없는 요청을 포함하여 더 광범위한 요청에 응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간단한 요리법을 물어보거나 여행 시기 등을 물어볼 수 있는 것이다.

CNN Business 기사

Bloomberg: Intel, Micron Spending Spree Shows Chip Diplomacy Bearing Fruit

Intel, Micron, 해외 투자 확대한다

- Intel과 Micron은 미국 이외의 지역에 수십억 불 투자하여 새로운 칩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는 중국과의 긴장 속에서 핵심 부품 공급을 다각화하려는 글로벌 경쟁을 강조한다.
- Intel CEO Pat Gelsinger는 Poland의 Wroclaw에 46억 불 규모의 새로운 칩 시설을 발표했고, Micron은 인도에 반도체 패키징 공장을 설립하는 데 최소 10억 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 미국은 중국 이외의 주요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한 세계 의존도가 커지면서 자국과 우호 국가에 첨단 칩 제조를 추진하고 있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J.P. Morgan: The new industrial policy war and the vital role of advanced semiconductors

새로운 산업정책 전쟁과 첨단 칩의 핵심 역할

- 반도체는 중국적으로 디지털 시대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 경제에서 오일이나 가스보다 중요하다.
- 현재 반도체 관련 전 세계적으로 산업정책에 재조명되고 있다. 미국이 CHIPS and Sciences Act 법을 통해 첨단 반도체 투자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확보를 주도하기 때문이다.
- 작년부턴 미국이 도입한 수출 통제는 1) 북미 '칩 통로'를 확보하고 2) 지정 학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첨단 반도체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 미국은 수십년간 반도체 우위를 점하다가 글로벌 칩 생산 점유율이 1990년 37%에서 12%로 내려앉았다. 반면 중국은 점유율이 15% 늘었고, 2030년 24%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바이든 행정부는 첨단 반도체, 양자 컴퓨팅 및 일부 형태의 인공지능에 대한 사모 펀드 및 벤처 캐피탈 투자에 적용되는 추가 제한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중국은 희토류 생산에서 중국의 지배적인 역할을 고려할 때 희토류 원료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 반도체는 미중 전략 경쟁에서 핵심인데, 대만은 특히 하이테크 분야에서 관련 중간재 주요 공급자로 핵심 역할을 한다.
-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 이상이 대만에서 제조되는데서 알수 있듯 대만의 기술 지배력은 확고하며, 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반도체 공급망이 무너질 수 있다.
- 유럽, 중국, 한국, 일본 등 다른 국가들도 자국 내 칩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칩 제조 장비의 수출을 제한하는 산업 정책을 도입하는 등 그 뒤를 따르고 있다.
- 올해 초 미국, 멕시코, 캐나다는 북미 정상 회담에서 북미 칩 통로를 구축하기 위해 반도체 제조 공급망에 대한 논의를 재개했다.
- 정보 보조금은 장기적으로 반도체 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도록 제조 비용을 낮출 것으로 보인다. 향후 10년간 미국 반도체 생산을 위해 20개 주에서 2,150억 달러의 민간 투자가 발표됨에 따라 민간 인센티브와 국가 안보 이익이 협조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번역: 민경용 부장

J.P. Morgan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 등 금리인상 막판 국면에 침체 우려 고조... "정책오류" 경고도

미국·독일 장단기 금리 역전, 3월 초 은행권 위기 직전 수준
블룸버그 "미국 경제, 여전히 견디고 있지만 힘 빠지고 있어"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가운데 과도한 금리 인상에서 따른 정책적 오류나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그동안 10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올렸던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4일 금리를 동결하면서도 연내 2차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20개국)이 이미 1분기에 경기 침체에 진입한 가운데, 유럽 중앙은행(ECB)은 이날 8회 연속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4.00%로 0.25%포인트 올리면서 다음 달에도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_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